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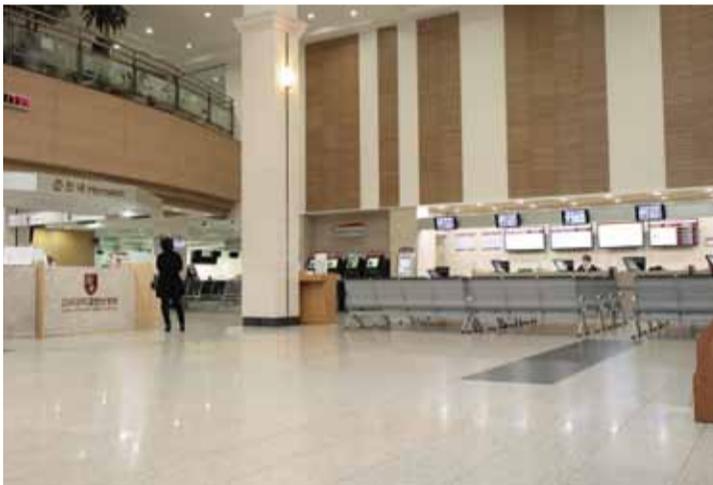
no.49

2014년 11 / 12월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12월 30일 (격월간)

새로 단장한 고대 안산병원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꾸며진 진료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시스템 제공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 이어갈 것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층 로비와 외래(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지하 1층 암센터, 별관 2층 직업환경의학센터를 새로 단장하며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10월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항암치료 전문병동 개소를 시작으로 이어진 '병원 외래 재배치 및 질환별 전문센터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새롭게 꾸며진 진료환경에서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암 적정성 평가에서 대장암, 유방암, 폐암분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고대 안산병원 암센터는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선진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단-검사-치료-재활 원스톱서비스', '다학제 통합진료' 등 암환자를 위한 집중·통합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맞춤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안산시 고혈압당뇨등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구자적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 및 지역보건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차상훈 원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외래, 로비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점차적으로 '병원 외래 재배치 및 질환별 전문센터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산, 시흥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ontents

2p

센터소식

응급의료의 중심에 서다



2p

클리닉소식

대장암클리닉



3p

세계속의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4)



5p

클리닉소식

말초혈관질환클리닉



5p

건강정보

건조한 겨울날씨, 어린이 천식주의보



8p

건강정보

손 피부병, 우울증 초래한다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화예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고대병원 모바일웹 접속

고대 안산병원,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중심에 서다 제10회 전국 응급의료전진대회 최고상 수상!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제10회 전국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12월 5일 금요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 10회 전국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수상은 고대 안산병원이 지난 30년간 안산, 시흥 및 경기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온 것은 물론 지난 4월 초대형 국가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신속하게 병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단원고 생존학생과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차상훈 원장은 "고대 안산병원은 지난 30여 년간 안산, 시흥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역시 지역 거점병원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진료 뿐 아니라 재난의학분야의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대 안산병원은 지난 7월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맞아 대학병원 최초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단원재난의학센터'를 설립하여 국가재난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국가재난 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차례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예측불가능하고 대규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병원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고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문성우 교수는 "고대 안산병원은 보건, 구급, 시 행정, 기타 주요 주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언제나 적절한 응급의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안산, 시흥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이 재난 안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전국 응급의료전진대회'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새로운 응급의료 슬로건에 마음을 더해,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노력해온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구형 암(癌)은 옛 말, 대장암 클리닉



대장암은 최근 식생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서구화 되면서 남성의 발병률이 아시아 1위에 오를 정도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즘 같은 연말은 잦은 송년회와 모임으로 육류섭취와 음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배변습관의 변화 나타나면 대장암 의심...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

대장암은 대장에서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종양으로 대부분 대장 점막에서 발생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항문 출혈, 변비, 설사 등 배변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대장암이 진행하면 복통 과 체중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 또는 포화지방 때문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의 대장암 발생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0~50%정도 증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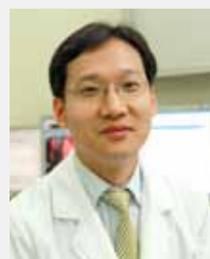
대장암 발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데, 대장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유전 질환을 제외하더라도, 직계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던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2~5배 정도 높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가족이 있거나 60세 이전에 샘종을 진단받은 가족이 있을

경우 대장암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 건강한 생활습관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치료에 효과적

검사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단 받으면 외과 수술로 대장 절제를 시행한다. 수술 전 후 필요에 따라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장암 초기의 경우 외과 절제 수술 없이도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는 "대장암이 점막이나 점막 아래층에 국한된 경우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므로 정기적 대장내시경 검사와 더불어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고 추적 관리하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라고 말했다.

대장암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한데 섬유질은 대장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시키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을 줄이고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에 있는 발암물질이 대장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 구자설 교수는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식사 습관과 규칙적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상이 발생하기 전 검사를 통해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대한 소화기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대장, 소장질환, 치료내시경(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진료시간 오전(월, 수, 금) 오후(수)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 (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연구교수, 교환교수, 방문교수,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우수한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한 안산병원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



은소희 교수 〈소아청소년과〉

대한 소아신경학회 교육수련위원
대한 뇌전증학회 홍보위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연수기간 2013. 03 ~ 2014. 02

연수내용 신경발달질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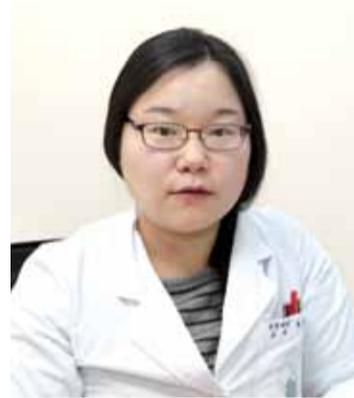
전문분야 경련, 뇌전증, 발달지연, 두통, 수면

진료시간 오전(수, 금), 오후(월, 수),
매월 1주 토요일 진료
*월 오후 - 신경클리닉



차진주 교수 〈신장내과〉

대한신장내과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연수기간 2013. 09 ~ 2014. 08

연수내용 신장 주피세포가 내인성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문분야 고혈압, 당뇨, 단백뇨, 혈뇨, 부종, 투석, 이식

진료시간 오전(화, 수, 금), 오후(수)

신년특집

올미년 새해 다짐,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금연 어떠세요?



그 동안 몇 번이나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새해 다짐으로 다시금 금연을 계획했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지정이 A씨로 하여금 금연의지를 강하게 해 준 것이다.

▲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사망 원인 중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약 67%로 매우 높았다. 담배 속에는 니트로사민, 비닐 크로라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발암인자와 4,000여 가지의 독성물질, 일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등 각종 암의 발생 뿐 아니라 심장, 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담배에는 0.1 ~ 2.0 mg 범위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니코틴과 타르는 치아와 잇몸의 색을 누렇게 변색시키며 구강 건강에 해롭다.

▲ 간접흡연의 피해, 가족·친구에게 돌아가

담배 연기는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성된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담배연기이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류연에는 다수의 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이 섞여있어, 간접흡연도 직접흡연 못지않게 인체에 유해하다. 특히 부모가 흡연할 경우 자녀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중이염이나 폐렴, 기관지염에 걸리기 쉽다. 임산부가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와 니코틴이 태아의 혈류로 들어가 산소공급을 감소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해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

▲ 금연은 건강과 경제적 이득 동시에

담배를 끊은 지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폐는 점액과 기타 흡연 잔해를 청소한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흡연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가 없어 피부가 힘과 탄력을 회복하고, 2달 후에는 뼈가 점점 단단해지며, 수년 이상 금연을 지속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폐암 등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또한 하루 한 갑(약 4천 7백원 가정)을 피우던 사람이 금연을 하게 되면 1주일에 3만 3천원, 1달에 13만원, 1년으로 치면 약 1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금연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지만, 흡연자들은 금단 현상 때문에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는 “금단 현상이 심할 경우 주위에 당근, 오이, 견과류, 건포도 등 담배 대용품과 함께 흡연욕구를 느낄 때 섭취하고, 양치질이나 손씻기, 샤워 등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며 “금연 후 암의 발생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0-15년 금연을 지속하면 비흡연자 수준에 도달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간행위원회 국문간행위원
대한가정의학회 의학교육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금연, 비만, 여행의학
진료시간 오전(수, 목) 오후(목, 금) *매월 3주 토요일 진료(4,5주 교대진료)

언론에 소개된 안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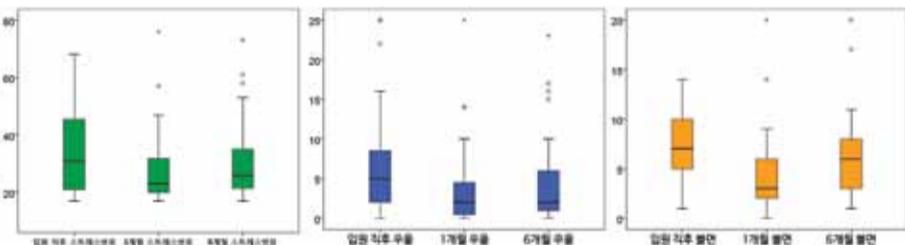
단원고 생존학생들, 여전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받는다!

6개월 기점, 스트레스 · 우울 · 불면 증상 악화 개별성 고려한 특수 치료와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추적 관찰 필요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스트레스 · 우울 · 불면증상에 시달리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과장 한창수) 의료진은 세월호 사태 이후부터 생존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증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 리스트, 우울 건강 설문지, 아테네 수면 척도를 이용한 심리평가를 시행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불면 증상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상자그림. 상자 안의 가로 굵은 선은 검사를 받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상자의 위아래 범위는 증상이 약한 하위 25%와 증상이 심한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50% 인원의 점수 범위의 분포를 보여준다. 상자 그림 밖의 위에 있는 점들은 증상이 아주 심각하여 평균에서 특히 떨어진 학생들의 개개인의 점수가 나타난 것이다.>

▲ 생존학생 불면, 불안, 예민함 등의 증상 지속 혹은 악화... 적시 치료가 매우 중요

사고 직후 초기 치료를 받은 단원고 생존학생 74명 중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는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사고 직후에는 스트레스 평균 32점, 우울 4.8점, 불면 평균 6.8점으로 생존학생 대부분은 불안, 우울, 과각성(자극에 대해 정상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 침습적 사고, 불면 등을 겪는 등 급성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 사고 1개월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증상은 평과 결과 스트레스 평균 21.5점, 우울 평균 2.7점, 불면 평균 3.3점으로 낮아져 점차 회복세를 띄었으나, 6개월에 접어들자 스트레스 평균 24.8점, 우울 평균 2.8점, 불면 평균 6.3점으로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창수 교수는 “검사결과가 스트레스는 15~20점, 우울은 7점, 불면은 4점 이상이면 전문의의 진료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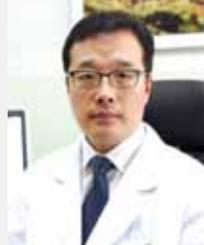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으로 사고 10주~12주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일부에서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원고 생존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교수는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안정 되었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불면, 불안, 예민함 등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는 경우, 스트레스

증상의 만성화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적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악화 막기 위해 개별성 고려한 특수 치료와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의 목적은 회피반응, 재경험 반응, 과각성 반응 등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남아 있는 부정적 기억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서술적, 의미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살려주는데 있다. 이러한 기억으로의 전환은 생존학생들이 의미를 해석하게 해주어,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생활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교수는 “치료를 위해 생존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수성, 개별성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트레스 증상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최소 월 1회, 졸업 이후에는 최소 3개월~1년의 주기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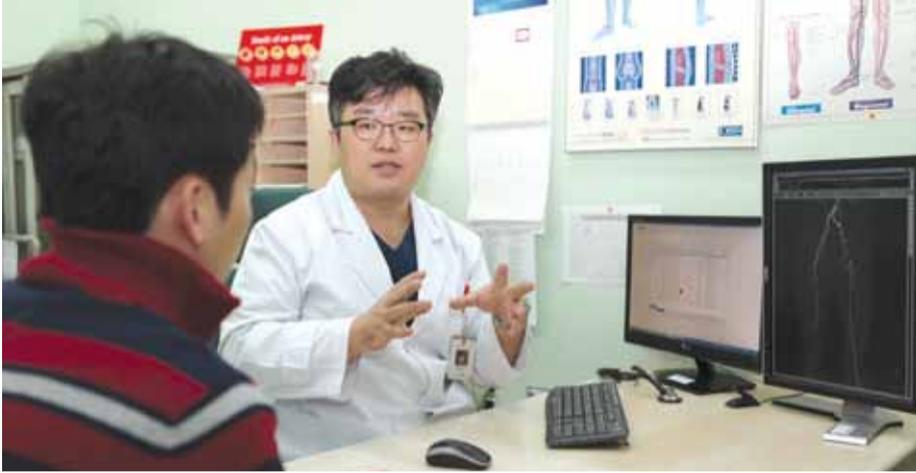
한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생존학생들의 개별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특수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치료 방법의 첫 번째로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자의 지시에 따라 피 치료자가 눈동자를 양측으로 움직이면서, 외상 기억과 관련된 감정, 신체감각, 부정적 생각 등을 떠올리게 하여 사고와 관련한 기억을 재처리 하는 방법이다. 양측성 안구운동은 외상과 관련한 기억의 소거와 재처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억이 재처리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감소하고, 외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로 뉴로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뉴로피드백은 자신의 뇌에서 발생한 뇌파정보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관찰 하면서, 뇌파의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뇌파 변화의 조절력을 기르게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외상 고통과 관련된 조절력과 통제력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 방법은 경두개 자기 자극술(TMS)로 두뇌 내에 자기 자극을 줌으로써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의 원인이 되는 신경 회로를 안정화 시켜준다. 일부의 생존학생 중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정신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우울증, 스트레스, 기억력클리닉, 치매
 진료시간: 오전(화, 목) 오후(월, 화)

다리가 저리세요? 막힌혈관 뚫어야 산다! : 말초혈관질환 클리닉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나뉘고, 성인의 경우 그 전체 길이가 약 10만km가 넘는데, 이 중 심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대동맥계 혈관(상행 대동맥-대동맥 궁-하행 대동맥-복부 대동맥)과 뇌와 머리 부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 및 뇌혈관계, 폐와 복부 장기에 혈관을 공급하는 혈관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혈관계, 즉 상지와 하지로 공급되는 혈관계를 말초혈관이라 한다. 따라서 말초혈관질환은 이러한 말초혈관계에 염증, 협착, 폐색 혹은 파열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넓은 의미로는 체내의 림프관의 질환도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초혈관질환은 일반적으로 폐쇄성 질환과 혈관 경축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폐쇄성 질환에는 폐쇄성 동맥경화증과 폐쇄성 혈전혈관염인 버거씨병 등이 있고, 혈관 경축성 질환으로는 레이노병이 가장 흔하다. 특히 당뇨병 환자와 흡연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 콜레스테롤이나 석회질이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 탄력성 떨어져

우리 몸이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인체 모든 조직과 세포에 잘 뚫린 혈관을 타고 필요한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의 혈관(관상동맥 혈관)과 마찬가지로 말초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나 석회질이 침착되고 굳어져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막혀서 혈류가 제대로 가지 않게 되면 심한 허혈성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혈류는 더욱 느려져 혈관에 혈소판이나 노폐물이 달라붙는 현상도 악화되며 장기는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된다. 더욱이 동맥경화 등으로 한번 좁아지고 굳은 혈관은 자연 회복이 없다. 혈관은 심장박동에 따라 유연하게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면서 혈액을 인체에 곳곳에 보내기 때문에 탄력 있는 혈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초혈관 질환의 진단은 대개는 부종이나 통증, 피부의 온도 및 색상 등으로 판단하기 쉽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말초혈관질환 클리닉 조원민 교수는 “사지 곳곳의 혈관 박동을 직접 촉지해 보는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 전 후의 혈관 지름과 비교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검사해 볼 수도 있고,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말초혈관질환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 며

“말초혈관질환이 진단되면 혈관 CT조영술로 혈관상태 및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치료 방법도 결정할 수도 있어 과거보다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고 설명했다.

▲ 콜레스테롤 낮추는 생활습관이 중요...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조영제 이용한 중재시술도

말초혈관질환의 치료는 항상 보존적 치료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지방섭취의 제한, 표준체중 유지, 규칙적 운동, 금연 등 생활요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하며 약물 치료 등 다른 치료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의사와 상의 하에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 이외에 문제가 있는 말초혈관에 혈류가 다시 흐르도록 하는 적극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에는 바로 수술하기 보다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중재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중재시술이란 손목 및 사타구니 동맥 또는 정맥을 통해 2mm 가량의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사 하고, 혈관조영 장비를 통해 혈관의 형태 및 협착, 파열 등의 이상을 찾아내 이상 부위를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등의 방법으로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수술보다 덜 침습적이고, 부분마취만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며,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요오드표지 조영제 약물을 투여하는데 있어 구토, 가려움증 등 가벼운 증상부터 드물게는 신부전증이나 쇼크 등과 같은 다양한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사전 검사에서 부작용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요오드표지 조영제 대신 과민반응이나 신장독성이 없고 비교적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조영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원민 교수는 “말초혈관질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신부전이나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의 요오드표지 조영제는 추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몸속에서 흡여져 없어지고, 합병증 없이 정확하게 혈관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혈관조영술이 필요한 고령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이요법 등을 통한 생활요법으로 혈관에 콜레스테롤, 석회질이 쌓이지 않게 건강한 혈관상태를 유지하고, 말초혈관질환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빠른 시간 안에 말초혈관질환 클리닉을 찾아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 조원민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
대한 흉부외과학회 평생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다한증, 하지정맥류
진료시간 오전(화, 목) 오후(목) *매월 1주 토요일 진료

건조한 겨울날씨, 어린이 천식 주의보



르고, 기도내로 점액분비물을 많이 방출되며, 기도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가래와 기침이 감기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천식은 치료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세가 나아지더라도 치료를 중단하지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천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약 30%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천식이란 폐의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에 의해 기도벽이 부어오

얇고 내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야 성인기에 천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기를 자주하여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이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인 집먼지진드기의 제거를 위해 이불이나 베개를 1~2주마다 세탁, 건조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원희 교수**



소아청소년과 서원희 교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대한 소아과학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호흡기, 알레르기
진료시간 오전-오후(월, 목), 매월 4주 토요일 진료, *목오후-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

2014년도 2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성공적으로 마쳐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2월 9일부터 4일에 걸쳐 진행된 '2014 2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전 교직원들이 합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사기간 동안 6명의 조사위원들은 병원 곳곳을 돌며 규정 및 문서검토, 개별환자 추적조사, 감염관리시스템 추적조사, 지속적 질 향상시스템 추적조사, 시설 및 환경안전시스템 추적조사, 의약품관리시스템 추적조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추적조사, 경영진 서류검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하였고, 12일 오후 대강당에서 총평의 시간을 가지며 평가를 마무리했다. 김은석 조사팀장은 총평에서 "의료기관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인데, 조사기간 동안 곳곳에서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한 고대 안산병원이 이번 인증조사를 기점으로 발전의 가속도가 더욱 앞당겨져 명실상부한 서해안시대 중심병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훈 원장은 "인증조사 기간 동안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해주신 조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감

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인증조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성심을 다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교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2014 교직원 화합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올 한해 병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4 교직원 화합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교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12월 17일(수) 고잔동 경복궁 웨딩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차상훈 병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송우혁 기획실장, 이승훈 교육수련위원장,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을 비롯한 6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송년의 밤을 함께 했다. 2014년 고대 안산병원은 세월호 사태, 본관 증축, 외래 리모델링, 2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최근에는 2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를 위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인증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본격적인 행사는 올 한해 안산병원에 있었던 많은 행사들을 정리한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댄스대회,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유쾌한 시간

이 이어졌다. 차상훈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세월호 사태, 의료기관인증조사 등 많은 일을 겪으면서 고생이 많았다"며 "오늘 송년의 밤 행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MOU 체결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는 10월 30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행정동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성장동력이 되어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차상훈 원장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재훈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 정보 교류, 연구장비 및 시설, 공간의 공동 활용, 양 기관간의 협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등 의료산업분야에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의 연구자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 기관이 활발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분야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총장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공학적 역량과 고대 안

산병원의 의료기술의 협력을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하여 'IT융합을 통한 재활용 의료기기 개발', '생체 모사구조 재료를 이용한 면역 네트워크 칩 모듈 개발', '생체재료 표면 코팅기술' 등 의료기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단원재난의학센터 2차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1월 12일(수) '재난환자 치료 경과 및 재난 대응 전략' 과 '재난현장 사고예방 및 재난안전 연구'를 주제로 '단원재난의학센터 2차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전 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가 국가적 관심사였던 세월호 사태 이후, 단원과 생존자 치료과정 및 경과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안산시 온마을센터,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안전보건공단 등 다양한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잇단 재난상황은 재난의학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방안이 잘 추진되어 단원재난의학센터가 대한민국 재난의학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대 의료원 차

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 역시 개최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대 안산병원 단원재난의학센터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재난의학 분야의 첨병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연아팬승냥이연합 기부금 전달식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1월 27일 '김연아팬승냥이연합' 과 '(재) 바보의 나눔' 로부터 자선기금을 전달받고 기부식을 가졌다. 자선기금 전달식에는

김연아팬승냥이연합 오윤택, 최주희, 송정혜, 박혜선, (재)바보의 나눔 민경일 사무총장 등 기부자와 차상훈 병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상훈 원장은 "김연아 온라인 팬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소외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부금은 저신장 환아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치료 및 검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연아팬승냥이연합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김연아 선수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 팬들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로 국내소외계층의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합시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1월 21일 본관 1층 로비에서 '2014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을 맞아 아동학

대 문제에 대한 안산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을 펼쳤다. 고대 안산병원과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11월 19일 '2014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이 참여하여 학대 아동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고 아동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2009년 개설되어 학대로부터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고대 안산병원과 협약을 맺어 매년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천사데이 행사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10월 2일 (목) 각종 나눔 봉사 활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1004 DAY' 행사를 펼쳤다.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관리'라는 기획주제로 실시된 이번 1004 DAY 행사에서는 본관 로비에 부스를 설치하여 혈압관리와 관련된 환자 및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색칠놀이, 사진전, 고혈압 관리 교육, 차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또한 각 병동별로 병동환자를 대상으로 한 족욕, 오이마사지, 풍선아트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원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도 고대 안산병원 지표보고회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 적정진료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13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선정된 필수지표의 진행결과보고 및 전 직원 공유를 위한

'2014년도 지표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상훈 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 적정진료관리위원 배재현 교수, 각 부서장 및 지표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 진료, 진료지원, 행정, 리더십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42개의 지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차상훈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보고회는 다가오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뿐만 아니라 병원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항목을 지표로 선정할 만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전 직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을 위해 힘을 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멘스 Artis Q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 영상의학과 세미나실에서 현존 최고 사양의 혈관촬영장비 도입을 기념하는 '2014 Siemens Artis Q

Symposium' 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펙비의 기능과 최소침습 치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Siemens AX Product Presentation(지멘스 헬스케어) ▲Cone Beam CT assisted TACE(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 교수) ▲Angio Suit Rounding & Artis Q Demonstration(영상의학과 정환훈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이뤄졌다. 차상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장비 도입이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각종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최소침습 치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향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뜻 깊은 행사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맞이 '코시안의 집' 선물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12월 23일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쉼터

(Day Care Center)인 '코시안의 집' 을 방문하여 연말을 맞아 온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희 교수, 이경진 간호부장, 신생아중환자실 황미정 수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부 바자회와 모금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이불, 정수기, 장난감 등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간호부에서는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하여 '코시안의 집' 에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과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펼쳐갈 예정이다.

고대 안산병원, 국제환자유치 위한 국제의료시장 시장 진출!

인도네시아 정부초청 검진 및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2월 4일과 5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정부초청 검진 및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국제환자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행사는 고대 안산병원의 세계수준의 의료장비와 기술에 대한 홍보 및 상호협력으로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유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북(北) 수마트라 주정부 보건국장, 동(東) 자바 주정부 대외협력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대 안산병원 종합건강진

단센터에서의 검진과 병원 팸투어를 통해 고대 안산병원의 높은 수준의 의료장비와 기술을 경험했다.

고대 안산병원은 차상훈 병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진료협력센터 박종태 센터장, 조원민 부센터장, 최원석 부센터장 등이 유치단으로 참석해 북 수마트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의 업무협약 MOU체결을 논의하는 등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행사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는 “진절할 직원들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병원의 진료시스템이 인상적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차상훈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유일의 상급의료기관인 고대 안산병원은 경기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 국제의료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대 안산병원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고려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종태 진료협력센터장은 “협력기관 지정 및 협력기관 인증현판 설치로 외국인 환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경기국제의료협회와 같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기관들과도 협력하여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국제의료관광 사업 및 협력병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손 피부병이 우울증까지 초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 피부관리에는 민감하지만 손 피부관리에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는 손에 피부 건조증, 각피증 및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손 피부병'이 유발 또는 악화

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뜯거나 긁어서 만성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손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핸드크림을 발라 손에 수분을 공급하고, 물일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염색약, 소독제, 화학약품 등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손상욱 교수

될 수 있습니다. 손은 증상이 악화되면 갈라지거나 피가나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 흉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대인기피와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 피부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에는 다



피부과 손상욱 교수

접촉피부염 및 피부알레르기학회 총무이사
아토피피부염학회 홍보이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알레르기, 아토피, 건선, 여드름, 레이저
진료시간 오전(화, 금) 오후(화, 금)

대장암, 유방암, 폐암 분야
'최우수 등급' 획득

2015년에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병원